



휴가철 대비 하절기 차량점검·관리

여름의 한가운데서 있는 것 같은 요즘,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계절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에는 노면 상태에 따라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여름철에는 자칫 소홀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 쉽다. 특히, 장마철에는 물에 젖은 도로에 마찰계수가 적어 미끄러지기 쉬울 뿐 아니라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수상스키를 타는 것처럼 물위를 활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휴가철을 대비하여 소홀하기 쉬운 여름철 차량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냉각장치

여름철 자동차 이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엔진과열이다.

이를 막기 위해 무더위로 인한 엔진 과열을 방지해주는 라디에이터의 누수, 균열, 벨트 조임의 이완, 호스 등을 확인해야 하며 냉각수의 양도 점검해야 한다.

먼저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침전물이 묻어 나오는지를 확인하여 침전물이 묻을 경우 냉각계통을 세척해야 하며 보조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물이 새는지 확인해야 한다.

냉각장치는 1년에 한번 정도 완전히 물을 빼고 다시 채워야 하며 냉각수의 높이, 상태, 농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냉각통로 호스는 2년에 한번 교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가 점검자들은 엔진이 완전히 냉각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냉각장치 뚜껑을 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에어컨

에어컨은 냉매가스가 부족하면 냉각능력이 떨어지고 컴프레서 등 다른 부품에 무리를 주므로 냉매가스의 양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

엔진과 에어컨을 작동하여 엔진룸속의 에어컨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투명창을 통해 나타나는 기포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량의 기포가 흐르면 정상이지만 기포가 많으면 가스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에는 증발기를 떼어내어 세척해주면 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에어컨 냉방효과가 지나쳐 팽창밸브와 증발기가 얼어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온도조절기는 약냉으로 하고 풍향조절기로 실내온도를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엔진

무더위로 엔진이 과열되기 쉽기 때문에 냉각팬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온도조절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등 냉각계통 엔진을 잘 점검해야 한다. 냉각수 질이 좋고 양이 충분한지도 살핀다. 장마기간에는 엔진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되기 쉬우므로 점화장치와 연결 부분도 잘 점검해 누전에 대비한다.

엔진오일은 5,000km마다 교환해 주어야 하는 소모품이므로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평지에서 엔진오일 게이지를 찍어봐서 Max와 Min 사이 혹은(Full)과 L(Low)사이에 와 있는지 확인한다. 색상은 투명한 갈색이어야 하며, 검은색(교환시기 지남)으로 되었거나 흰색(물이 섞여 변질된 것임)으로 되었다면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와이퍼

와이퍼는 주행기능과 무관해 소홀하기 쉽지만 장마철 안전운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유리면과 접촉하는 부위인 블레이드가 닳지 않았는지, 모터의 작동상태, 노즐의 분출여부, 노즐의 분사각도 등을 점검하여 노화된 고무 블레이드는 교체하고 충분한양의 앞유리 워셔액을 갖춰 놓는다.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먼저 퓨즈의 단선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이라면 와이퍼 배선을 점검해 본다. 이때 비누세제나 담배재 등을 앞유리에 묻지르면 빗방울이 맺히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 어느 정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도록 하자.

□ 타이어

여름철에는 빗길 운행을 자주하게 되므로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잘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면 잘 미끄러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타이어 내부는 여름철에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팽창하게 된다. 따라서 타이어 압력이 과팽창하면 타이어 수명과 제동력에 영향을 주어 안전 운전엔 차질을 빚는다. 장거리 운행 전이나 중간에 노면과 맞닿는 부분인 트레이드의 홀 깊이가 1.6mm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며 고속도로 주행시에는 평상시보다 20% 정도 타이어 공기를 더 넣어주는 게 좋다.

□ 브레이크

여름철 장거리 운행뒤에는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브레이크액을 체크해 봐야 한다. 뜨거운 노면 위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으면 패드와 라이닝이 가열되어 페이드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 배터리

장마와 무더위로 에어컨과 각종 전기기구들의 사용

량이 늘어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전기만 사용해 배터리의 지나친 소모를 막아주는 것이 좋다. 또한 배터리 몸체의 단자와 케이블 연결선으로부터 녹을 긁어내고 모든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연결선을 다시 조여 주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습기가 많은 때이므로 전기배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굵은 고압선 부분에는 비가 오거나 물 위를 달리더라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선이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선은 벗겨진 부위가 없는지, 정돈은 되어 있는지, 차체 틈에 끼어있는 배선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테잎으로 감아주거나 잘 정돈해 두도록 한다.

배터리액 높이도 점검하여 부족하면 보충해 주어야 한다.

□ 백미러

비오는 날에는 백미러에 물방울이 맺혀 시야에 장애를 받게 된다. 이때 백미러 표면에 중성세제나 담배꽂초를 묻지르면 빗방울이 맺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보디

여름휴가 중에는 바닷가 도로나 비포장길을 달리는 경우가 많아 차에 이물질과 소금기가 묻기 쉽다. 돌아온 뒤에는 차량 하체까지 깨끗하게 세차하고 벗겨진 차량 페인트는 칠해 잦은 비로 녹이 스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